

영감본①

영감본은 짐치백의 아들
삼성제우다.

서월 남대문 밖겼딜로
솟아나던

짐치백의 아들 삼성젠디.

이 삼성제가

열다섯 시오세가 나가니

동닛 존장 박대^호고

동닛 처녀 허줄 내고

모을에 그대로 두어서는

모을이 판날 듯^호니

짐영감 아들 삼성제를

만주 들은돌^{??}지로

귀양을 보냈더니

송영감 칩으로 들어가고

“주인이나 즘간 빌립서

밤 유이나^호였당 갈쿠다.”

그 날 밤을 자고서

호^를날은^호는 말이.

영감님네 질이 공^소가

가난^호고 서난^호니

우리는 잘 먹으민

잘 먹은 값^호곡

못 먹으민 못먹은 값 흡네다.”

“무엇을 좋아^호여집네까?”

“쇠 잡아도 전몰제가

돗 잡아도 전몰제라.

독 잡으민 홍문년 대잔치

수수떡에 수시밥에

주육안주에 주소주에

좋아^흡네다

우리를 잘 대접^호민

부귀영화나 시겨두고

가겠수다.”

“어서 걸랑 경 흡서.”

훗날은 송영감이

전듯 잡아 전몰제로

수수떡에 수시밥에

홍문년 대잔칠 드렸더니

짐영감 아들 삼성제가

훗는 말이,

“영감님넨 세경땅에

농수를 하영 집서.”

농수를 하영 했더니

삽시에 일부제가 되여간다.

훗날은 송영감이

전쇠 잡아 전몰제로

홍문년 대잔치를 드렸더니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먹으민 못먹은 값으로

송영감이 돈을 하영 비찌고

만주 장판으로 들어강

우마 장실 훗여 봅서.”

돈을 하영 비찌고

우마 장실 훗였더니

습시에 천하거부 되여간다.

동넷 사름 훗는 말은

“송영감이 그전이는

가난하게 살다가

습시에

그 청년 서이 오라 산지우젠

어떻하난 일부제가 되는디.

그게 분맹훈 사름이 아니고

생도체비가 완연하다

그 생도체비를 예방을 시경

내보내지 아녀고 보민

습시에 살아날 때가 웃이

집안이 사름이나 금전이나

다 망할 것이라.”

생도체비가 분맹 훙덴
수군수군 흐여가난
송영감넨
분맹흔 사름으로 알았더니마는
이제는 사름이 아니고
눈치로 생도체비로 알고.
이만흐민 어떻흐린,
송영감이 핑계를 잡아 놓고
흐는 말이.
“영감님네, 기술이 좋니.
경상도 안동땅을
저 올레레 돌라다 놓민
내 집 종수 흐영
드랑 살 것이고,
그렇지 아녀민
내 집 밖겼디 떠나야 큵네다.”
짐영감넨, 흐는 말이
“어서 걸랑 기영 큵서.
불미대장 신 디 강
씌고지 일은아홉을 치여옵서.
경상도 안동땅을
저 올래레 돌라다 놓구다.”
“어서 걸랑 경흐서.”
이젠, 삼성제가
씌고지 일은아홉을 ?져서
경상도 안동땅을 돌르젱
흐여도
석돌 열흘 백일이 되여도
느시 안동땅을 돌라오지
못흐니.
이만흐민 어떻흐리!
송영감이 그 핑계를 잡아 놓고,
짐영감 삼성젤
총배에 물적전
저 올레 낭데레
줄끈흐게 돌아매여두고
우낼도 장검으로

시도막에 직었더니.
삼성제가, 일곱성제로
아홉성제로, 열두성제로
부려준다.
“마바세계 하하…….”
이제는 죽은 도체비 혼령이
되여놓고,
저 올레레 나고간다.
송영감은
다시
도체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을 허기를
백매물을 잡아놓고
백매물카죽을
저 올레 어귓담데레 걸쳐놓고.
백매피를 우지왓데레 뿐려놓고
문전마다 백매물궤길 걸어놓고
예방을 시겼더니
짐영감 도체비들은
송영감집으로 들어올 수 읍시니
“어딜 가민 좋리?”
우로 삼성제는
서양각국 들어가고
세로 삼성젠
일본 대판 가미상
마줄이 철공소 들어가고
알로 삼성젠
우리나라 서월
호적계를 들어가로.
또 알로 삼성젠
강경은 배락바위
동지기 개맡디 앗았더니
천기대회 뱤자릴 집떠보니
지주도가 좋아
지주도엘 들어오고
골막은 장배임제 배더니
짐녕은 차동짓배 장수초로.

강경은 배락바위
동지기 개맡디 무곡치레
장수초로 갔더니
“어디 사는 이룬이우꽈?”
“지주절섬 사옵네다.”
“무신 일로 옵디가?”
“무곡치레
장수초로 옵네다.”
“경호건, 우리 상성제를
선개 받지 말양
지주절섬 식거다 주민
부귀영화나 제겨 줄쿠다.”
“어서 걸랑 경흡서.”
정사공 정동모 거느리고
멩지와당 씰부름 나니
엇득호난, 혼시반에
지주절섬 들어오고
“어느 개맛이 좁네까?”
“짐녕 일곱모들
존 개맛이 싫수다.”
“게거든에
짐녕개로 배 부찝시다.”
짐녕개로 배 부찌니
“물을 떼 잡으라
구물 떼 잡으라.”
배 아래 누리니.
“우리 모사 온 배랑
장군선양 일월로 모십시다.”
모관곳은 도련선양
정잇곳은 참봉선양
대정곳은 애기씨선양.
훈가지는 갈라다가
성내 송정이집으로 들어가고
돛잡아도 전몰제라
쇠잡아도 전몰제라
홍문년 대잔칠 받고
훈가지 갈라다가

어드름 솔불미로 노념하고
이도 크지 못하다.
소섬 동어귀직이로 들어가자.
큰장오리, 족은장오리
오백장군에 노념을 헌더니
어떻흔 산쟁이가
올라스민 선달피
열대자은 작업배에
소리 존 살장귀에
질이바른 마세조총
납늘개 귀약통을 두러매고
늬눈이 목동전에
청삽살이, 흑삽살이, 황삽살이
코안쟁이 거느리고
신산만산 아예산이 올라가고
오를목에 누릴목에
대노리도 제일천
소노리도 제일천
오르고 누리는 목에
눕피녹술 더운설에 단설에
콩톳, 태뒤, 주육안주
주소주가 좋아지니
산쟁이집 산신일 시군줄로
들어사
머리 ?진 기지속에
새용밥을 받아먹고.
훈가지는 갈라다
산신일월 시군줄로 노념하고
훈가지는 갈라다가
청수 당멀 솔불미로 노념하고.
훈가지는 갈라다
낙천 소롱낭^모들
오일본향으로 좌정하고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 먹으민 못먹은 값 하고
훈가지는 갈라다

육끄못 가시왓디
오일본향으로 좌정하고.
신펭도 노랑골로 좌정하고.
영낭이도 노랑골로 좌정하고,
구석밭도 노랑골로 좌정하고
고산도 일곱드로
노랑골로 좌정하고
초흐를, 보섭.
굴할망, 굴할으방으로
연고스를 받아먹고,
새당 덕수 짐집이
뒷할으방 오일본향에 노념하고
돛잡아 전몰제
쇠잡아 전몰제.
잘 먹으민 잘 먹은 깍으로
못 먹으민 못 먹은 깍으로
뱃보섭에 노념하고
모시장태에 간제미 주고
새당, 덕수 동불미에 노념하고
섯불미에 노념하고
훈가지는 갈라단
차귀 당산 수월봉으로 노념하고
훈가진 갈라단
일곱드루 오일본향에
좌정하고
훈가진 갈라단
두미 살래므로 축일본향
하군줄로 노념하고
금릉 안 가민
소왕므로 술일당으로 좌정하고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 먹으민 못 먹은 값.
일대장군, 이대장군,
삼대장군, 수대장군,
오대장군, 육대장군,
칠대장군, 팔대장군,
구대장군 십대장군.

열훈성제, 열두동무.
아홉성제, 일곱동무.
펜지만 붙은 망근 씨고
꽝만 붙은 서패지에
짓만 붙은 시도폭에
모기만 붙은 시질목에
단만 붙은 행경 신고
짓만 붙은 신을 신고
정동 걷어 반둘꼴이
들을 매고
훈쁨 못훈 곰방대에
앞엔 청소초롱 불붉히고
엇똑^흐민 천리 가고
엇똑^흐민 만리 가고
천방은 지방.
심방은 간방.
부름을 이식 삼고
솜피 철복^흐고
수오 의식^흐고
구름을 양숙 삼고
구름을 벗을 삼고
엇똑^흐민 천리 가고
엇똑^흐민 만리 가던
영감참봉 신위임신.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 먹으민 못 먹은 값 ^흐던
영감참봉 신위임신.

<한경면 조수리 여무 54세 조술생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23-627.

영감본②

서월이라 삼각산
먹장국 날로못서 솟아나든
허정심이 사옵대다.

물 Ⓜ 쉬 좋고
유기전답도 좋아진다.
남전북답 넙은 전지 좋아진다.
아들이사 솟아나는 게
하나 둘 일곱성제 솟아진다.
큰아들은 서월 삼각산
추지를 헌여간다.
둘셋 아들은 함경도라
백두산 추지를 헌는고냥.
셋셋 아들은 강안도
금강산 추지하고,
넷셋 아들은 전라도
지리산 추지 헌는구냥.
다섯셋 아들은
목포 유달산 추지하고.
육수셋 아들은 경상도
태백산 추지하고
일곱셋 아들은
오소리 잡놈이 되였드라.
망만 붙은 대패리에
짓만 붙은 배도폭에
벌통행경
서숙미투리 종이락국 둘을 매고
훈쁨 못훈 곰방대에
시름초를 피워 물고
지주와당 노념 좋다.
지주와당에 들어올 때
진도 안섬 진도 밧섬
노념을 헌명 들어온다.
쌀물술엔 동의와당
들물술엔 서의와당
지주와당 근당호난
가파도로 마라도로
쇠섬 진질깍 놀든 선양.
산으로 올라스민
할루산은 장군선양.
서늘꽃은 애기씨선양

대정꽃은 도령선양.
꾀미꽃에 각시선양.
노념호든 조상이여.
모여지민 일곱동세
핥어지민 열느농세.
물이 들민 수중에 놀고
물이 쓰민 갯곳이 논다.
육지지멘 올라가민
압록강에 놀단 선양.
임진강에, 낙동강에,
두만강에 놀단 조상.
서월 한강에,
강안도 하천에 놀단 조상.
산으로나 들어수민
펭양 모란봉에 놀단 조상.
황해도라 구월봉에 놀단 조상.
강안도 근당호민
대엄산에, 백석산에.
임산에 놀단 조상.
충청도라 계룡산에
광주 무등산에 놀단 조상.
제주와당 근당호민
성산봉에 놀단 조상.
대정이라 삼방산에.
물장오리, 태역장올서 놀단 조상.
웃바매기, 알바매기.
돈지오름에 놀단 조상.
높은 오름 드랑쉬에.
도들봉에 놀단 조상.
서무봉에 웬당봉에.
배리봉에 놀단 조상.
갯곳으로 누르수민.
쇠섬 진질짝 놀단 조상.
성산포구에 놀단 조상.
종달리라 소끔밭서 놀단 조상.
월정 어장판서 놀단 조상.
짐녕, 한개에 놀단 조상.

넓은코지서 놀단 조상.
북촌이라 드리예에
허뎅이 알서 놀단 조상.
서코지에, 세배코지에
놀아오단 영감이여.
지방여에, 물똥여에,
중두굴에, 큰바닥에
셋바닥에, 구한팡에
올연여에 놀단 조상.
모살물깍에 한개코지
느리질서 놀단 영감.
서창머리에 놀단 영감.
소여코지에 놀단 선양.
드리깨서 넓은코지서
놀아오단 신주선양.
신흥이라 마능캐에
소곰밭서 놀단 영감.
동의와당 광덕왕에
서의와당 광신유당.
남기와당 적요왕에
북의와당 흑요왕에
알로 누르 주축인묘
진수오미, 신유술해.
놀아오단 선양님
모친 간장을 풀려 놓서.

<조천면 함덕리 남무 51세 고맹선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27-628.

영감본③

대국 황성 들은돌 머리서
솟아난
짐씨대감 송씨부인.
나라의 역적이
우리 조선 소국이라고

귀양정배 서월상경 인천제민

진도안섬, 진도밧섬.

소완도 청빌레

나조 제민창서 살아가는 것이

아들 일곱 성제가 솟아나서

장성이 되여, 크니.

큰 아들은 대국황서

전근조상 있는 곳데 보내고

셋아들은 세양각국 보내고

시쳇 아들은 일본데래

보내여부러.

늬쳇 아들은 우리 조선

강안도 떨어진 강 노념^호고.

다숃쳇 아들은 함경도

원산 두치강서 노념^호고

으^으숯쳇 아들은 막 들고

충청도 계룡산, 목포 유달산

노념^호고

부산항구 지방서 사숙꽃서

노념^호고

쉬영 울뜻목 노념^호고

일곱체 막 아들은

만고 오입쟁이.

망만 불은 세패리에

앞이는 청새초롱

뒤에는 흑사초롱

구월 구일에

지주를 들어왔다.

그래서 할루산으로 치돌아

구상나무 제선간

꾀미꽃, 서늘꽃

배릿내 영감또

넓은팡은 장군또.

남은 것은

해각으로 영감또가 되여.

<애월면 구염리 남무 60세 김을봉님>

영감본④

차귀 당산봉은 영감당인다.

영감 솟아나긴

진도안섬 진도밧섬

울댓목은 소완도우다.

아방국은 밸파진

어멍국은 송지장.

강경은 배락바위

청빌레서 솟아지던

일대장군 이대장군

삼대장군

우으로 삼형제는 솟아지니

대국 천제국 들어가서

칼판머리에 노념호는 영감.

수대장군, 오대장군.

육대장군.

가운딜로 삼형제는

솟아지니

일본 주년국으로 들어가서

알본선양 가미상 신중선양

노념흡네다.

칠대장군, 팔대장군

구대장군

알로 삼형제는 솟아지니

우리 조선 동양 삼국 들어사서

팽안북도 팽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들어가민

산신대감으로 노념호고

성주대감으로 노념호고

몸대감으로 노념흡네다.

강안도 금강산 들어사면

산신군줄로 노념호고

서월 삼각한 노념호고

인천 항구에서 노념하고
충청도 계룡산 노념하고
광주 무덤산서 노념하고
목포 유달산서 노념하고
진도안섬 진도밧섬
소완도 밸파진 노념하고
추주 관탈 노념하고
제주 할로산은
장군선양 노념하고
차구 당산봉
영감또로 노념하고
서늘곳은
애기씨 신중선양
노념흡네다.
꾀미꽃은 각시선양
정이꽃은 영감선양
대정꽃은 도령선양
노념흡네다.
새당 덕수
뒷할으방 내외칠성
악근도관 한도관
악근불미 한불미
악근물에 한물에
악근집게 한집게
노념하고
쑤시밥에 쭈시떡에
기얄안주 청감주나
제육안주 주소주나
백돌래나 백시리나
상을 받곡
노념하던 영감또는
짐참봉에, 짐영감에.
송참봉에, 송영감에.
쇠잡아도 전물제
돗잡아도 전물제
독잡아도 전물제
상을 받던 영감돕네다.

이 영감또는
산으로는 산신군줄로 놀고
Mountain is played with mountain spirit's cord
모을로는 본향군줄로 놀고
village is played with village spirit's cord
거리에서는 사살귀로 놀고
distance is played with a wild boar's cord
물로 가면 요왕군줄로 놀고
water is played with a king of water's cord
배론 가면 선양군줄로 놀고
Bairon is played with a King of Bairon's cord
안여, 밧여, 정살여, 지방여,
Anye, batye, Jeongsalye, Jibangye,
돌광여, 숨은여,
Dolgwangye, Suneunye,
악근물망, 한물망
Akgeunmulmang, Hanmulmang
미리역 삼형제.
Mirireok Samhyeoge.
후내기 절고개 노념하고
Hounaeji Jeolgoe Noreum-hago
물이 들면 수중에 노념하고
Water flows, in water Noreum
물이 쓰면 개맡디 노념하고
Water flows, in water Noreum
들물 나면 서의와당 노념하고
Water flows, in water Noreum
쓸물 나면 동의와당 노념하고
Water flows, in water Noreum
청새초롱 불붉히고
Chungsaejorong Bulbul-hi
낮에는 연불로 노념하고
Daytime is played with a red lantern
밤에는 신불로 노념하고
Night is played with a red lantern
예주는 만나면
Yejusun Maenam
남주로 변식하고
Namjuro Bwansik-hago
남주는 만나면
Namjusun Maenam
예주로 변식하고
Yejusun Bwansik-hago
훈시 펫작 천리도 가곡
Hunsi Pteukjang Cheonrido Gacheok
훈시 펫작 만리도 가는
Hunsi Pteukjang Manrido Ganeun
영감돕네다.

<대정읍 하모리 여무 39세 김옥자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29-630.